

■주간 증시 전망

트럼프 변덕... 대북관련주 변동성

외국인·기관중심 수급 기대

반도체·은행·증권주 관심

지난주 국내증시는 미중무역분쟁이 완화된 가운데 마이크로칩이 자사주 매입과 향후 매출 증가를 시사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목요일 저녁 북미회담 취소 발표로 건설/기계 현대그룹주 등 대북관련주는 하락하고 제약바이오 게임 IT주는 반등양상을 보였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6월초 미국중앙회사가 개최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 최근 바이오 대표주인 업종 흐름을 본다면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트럼프대통령이 공개서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지만 미국인 원하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가기 위한 것으로 북미회담 결렬보다는 연기됐다고 보는 시각이 높았다. 금요일 국내시장에서도 북미회담 취소 발표는 4월 이후 급등했던 대북관련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사실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까지 북미회담이슈가 특정 대북관련주를 제외한다면 한국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주말 또다시 트럼프대통령의 변덕이 시작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취소발표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논의 중이며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으며 북한과 우리도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향후 지켜보자'며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상황이 급반전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모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대통령과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얻으려는 북한이 만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내 강경파들이 북한에 끌려간다는 인식을 복식시키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회담을 다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럼프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막말 공방과 비랑갈 전략을 사용하는 북한에게 정상국가로서의 외교적 예의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월 이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철강 기계 등의 업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 및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가 상당부분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증권사도 신용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 임박하며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중심의 수급 시장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중심으로 수급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반도체 중국관련소비재 증권 은행업종에 관심을 높일 시기라고 판단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농업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나선다

## 농협전남본부, 질병·사고 영농활동 곤란 농가 지원 취약 농가 인력 지원사업·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에 나선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농사철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7일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과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실시,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사업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등 두가지로 나뉜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와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다. 또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농업인도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도 확대했다.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이다.

도우미는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세탁, 말반찬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최대 12일(경로당 24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신청·상담은 수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

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전남지역 농촌 취약계층 2352가구에 행복나눔이를 파견해 영농도우미에게 총 11억4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2809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의 경우 행복나눔이 2500가구와 영농도우미는 2900농가(인건비 12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등 수혜자는 정부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행복나눔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농촌 결혼이민여

성 상담제공을 위한 1대1 후견인제도 추가됐다는 게 전남농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전남농협은 올해 '농업인행복콜센터'를 도입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사업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말벗서비스를 포함한 정서적 위로와 지역봉사 단체와 연계한 각종 생활불편 해소, 위기 발생시 112·119 등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한 맞춤형 '종합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거동이 불편한 고령농업인, 장애인 농가 등 도움이 필요하거나 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농업인행복콜센터 대표번호(1522-5000번)로 상담해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8일에는 행복콜센터로 농가고충을 접수 받아 영암군 군서면 고령 농업인 가정을 방

문해 보일러 교체와 노후된 농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수혜자는 고령의 나이로 소득이 없어 오래된 보일러도 교체할 수 없었던데다, 거동이 힘들어 생활폐기물도 버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독거노인도 많은 점에서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대선 본부장은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행복나눔이 사업을 통해 전남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말벗지원 하고 있는 모습.

###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딸기농가 체험

#### 농협 광주본부·북광주농협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와 북광주농협(조합장 구희호)은 27일 지역아동센터 아동 80명을 초청해 북구 학림마을 딸기농가에서 농촌현장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 어린이들은 북광주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지산딸기의 재배법을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졌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촌을 접하기 힘든 도시 아이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촌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령화와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농촌마을을 찾아 주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농협동 도시민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부·어린이 등을 연간 3000명 이상을 목표로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중소기업 교육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27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업종의 FTA 활용도는 56% 수준으로, 자동차 등 수출 기기(78%)나 플라스틱·고무(73) 등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은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위해 광주·전남중기청이 준비, 농수산물가공식품기업에 주로 초점을 뒀다.

FTA 활용·대응 방법에 대한 실전 사례 위주와 수출성공 노하우 공유를 위한 분야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형 청장은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주력 수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